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챗GPT로 다가온 생성형 AI의 명암
- 이슈분석** 美 상업용 부동산(CRE) 부실 가능성 점검
- 금융경영브리프** 디지털지갑, A2A 등 신규 결제 수단의 성장  
디지털·AI를 통한 아시아 WM시장 공략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외 환 : 긴축 경계감 재부각에 주의  
부동산 : 가격 하락폭 축소되나 부담요인 지속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 연구자는 사람<sup>+</sup>, 고객은 사람<sup>++</sup>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 집필진

####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김종현(jh.kim\_)

#### 논단

연구위원 김남훈(zec89)

#### 이슈분석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김문태(kmt)  
수석연구원 이재완(jwan.lee)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챗GPT로 다가온 생성형 AI의 명암
- 04 **이슈분석** 美 상업용 부동산(CRE) 부실 가능성 점검
- 08 **금융경영브리프** 디지털지갑, A2A 등 신규 결제 수단의 성장  
디지털·AI를 통한 아시아 WM시장 공략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외 환 : 긴축 경계감 재부각에 주의  
부동산 : 가격 하락폭 축소되나 부담요인 지속
-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챗GPT로 다가온 생성형 AI의 명암\*

김 남 훈 연구위원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챗GPT를 응용한 플러그인들이 나오고 대기업들도 초거대 AI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실생활에서 AI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다가온 초거대 AI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고용, 신뢰성, 윤리, 보안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금융업에 적용할 경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입과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정제된 데이터의 확보와 기업들의 AI 거버넌스 역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 챗GPT, 실생활에 AI 체감도 크게 높아

생성형 AI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작년 미국의 한 디지털 미술전에서 미드저니라는 AI프로그램을 활용한 작품이 우승을 차지하며 생성형 AI가 화제가 되었고 이제 세상은 챗GPT라는 대화형 AI에 또 한 번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챗GPT는 오픈AI가 작년 11월 출시한 이후로 2달 만에 월사용자 1억명을 돌파했다. 사실 알파고가 우리들에게 충격을 준 이후 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나, 일상적으로 AI를 실생활에 체험하기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챗GPT는 마치 영화 ‘Her’에 나온 AI와 유사한 대화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주고 있다. 빌게이츠도 챗GPT와 같은 생성형AI가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이후 본인이 겪은 가장 중요한 기술적 진보라 하니 향후 다양한 기기의 활용 및 소통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챗GPT 월사용자 1억명 넘어서며 실생활에 빠르게 다가와

이미 발빠른 스타트업들은 챗GPT 기능을 접목하거나 플러그인(Plugged-In) 형태로 제공하며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오픈AI는 유명한 여행, 숙소검색, 식당 예약, 쇼핑, 번역 사이트 등을 플러그인 형태로 연결했다. 답을 얻기 위해 여러 곳 다닐 필요 없이 챗GPT에게 물어보면 검색과 예약이 가능하다. 특히 GPT-4에서는 멀티모달(multi modal)이 가능해 음성과 이미지로 물어보고 텍스트 결과를 보거나 그 반대로도 행해질 수 있다고 한다. 지금보다 훨씬 똑똑한 AI비서를 옆에 두게 되는 셈이다. 관련해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이리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 사업자 참여하며 증가 중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 생성형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눈을 갖게 되며 생물의 종류가 폭증했던 캄브리아기처럼 바야흐로 생성형 AI가 나타나며 ‘AI as a Service’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 ∴ 고용 및 정보 신뢰성, 윤리, 보안 등 사회적 영향 적지 않아

생성형 AI가 큰 관심을 불러오는 이유는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OpenAI 연구진은 최근 GPT-4를 내놓으며 “GPTs(General Pretrained Transformer) are GPTs(General Purpose Technology)”라는 워킹페이퍼를 냈다. GPT-4가 과거 산업혁명을 촉발시켰던 수준의 범용적 기술이 될 정도로 생산성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논문에 따르면 GPT-4를 활용할 경우 소요시간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직업과 작업이 약 14%~46%에 이른다고 한다.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충격, 신뢰성 논란 불가피


다만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고용 충격 및 정보의 신뢰성, 윤리적 문제, 보안 등 사회적 영향은 적지 않다. 첫째, 몇 년 전만 해도 AI는 단순 반복 업무 및 저숙련자 고용 위기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오픈AI의 논문에 따르면 정보를 다루는 고학력 지식노동자들이 GPT와 같은 LLM(초거대언어모델)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생성형 AI도입으로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이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금융, 미디어, 법률서비스 등 고소득 직군이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둘째, GPT와 같은 생성형 AI 활용에 있어서 신뢰성 이슈가 지속될 수 있다. 생성형 AI는 사람처럼 정보와 논리를 바탕으로 맥락에 따라 답을 추론하는 AI모델이 아니다. GPT는 미리 학습된 단어 및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해 확률이 높은 답을 ‘생성’한다. 훈련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부정확할 경우 그럴 듯하지만 오류가 많거나 무의미한 답변을 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 사회, 정부 모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윤리적 편견 및 개인정보노출 위험도 여전히 존재

셋째,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윤리적 편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도 만만치 않다. 이미지 공급업체 게티이미지는 Stability AI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고 국내에서도 카카오가 AI로 만든 카툰 이모티콘의 입점을 불허하는 등 저작권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잘못된 학습에 따른 윤리적 편향성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최근 프린스

턴대의 AI연구기관 논문에 따르면 챗GPT에게 API를 활용해 특정한 페르소나를 할당할 경우 인종적 편향성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넘는 유해한 대답이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생성형 AI 활용과정에서의 기밀이나 개인 정보노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챗GPT나 각종 플러그인을 통해 질문한 자료는 AI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답변을 얻는 과정에서 프롬프트 인젝션 등 해킹을 통해 악의적으로 정보를 탈취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일부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사내 AI윤리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챗GPT 활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인트라넷에 구축해 외부연결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JP모건, BoA, 골드만삭스, 씨티 등 해외 금융사들도 오용 방지 및 기밀 누출 방지 차원에서 챗GPT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 금융권, 선택적 활용 및 AI거버넌스, 데이터 구축 필요

향후 LLM과 같은 생성형 AI는 마케팅, 운영, IT 코딩 및 개발, 업무 최적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이다. 금융권에도 자금세탁 및 금융사기방지, 내부감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생성형 AI는 챗봇이나 고객자문을 위한 AI 가상비서로 금융권에 가장 기대되는 영역이다. 다만 앞선 여러 가지 이슈를 고려 시 ‘AI as a Service’로 활용되는 외부 AI서비스는 보다 선택적으로 고려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에 있어서 고객의 신뢰 유지 및 개인금융정보 활용에 있어서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챗GPT 유료 회원 일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이탈리아, 캐나다 등 일부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도입 영역과 활용에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모델을 자체 개발하더라도 AI 거버넌스 체계가 먼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심사 및 고객 상담 등의 과정에서 비윤리적 응답이나 편향된 결과가 나올 경우 발생할 신뢰 리스크는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가능성 보장, 위험 평가 절차, AI에 따른 사고 책임 소재의 확인 및 대응 프로세스 등 관련한 대고객 AI 운영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위한 정제된 금융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부족한 부분은 데이터 합성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침 정책당국이 작년부턴 금융권 AI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AI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과 금융업권 AI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갈증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고 없이 다가온 AI 혁신이 소비자 만족과 금융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 

금융권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에 신중할 필요

## 美 상업용 부동산(CRE) 부실 가능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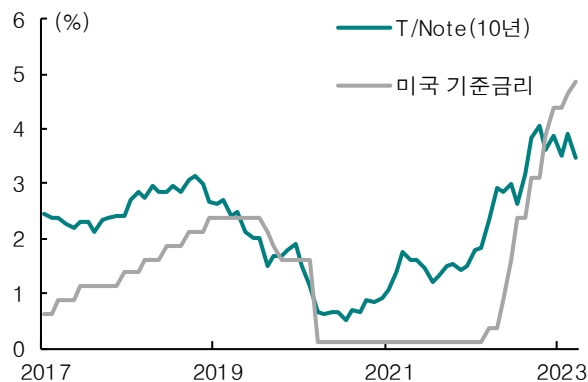
황 규 완 연구위원

금리 상승의 여파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리파이낸싱 등이 지연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이 클 경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마저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글로벌 유명 운용사가 투자한 일부 부동산에 부실이 발생하는 등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팬데믹 전후 글로벌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금리 상승으로 미국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CRE) 투자 부실 우려 높아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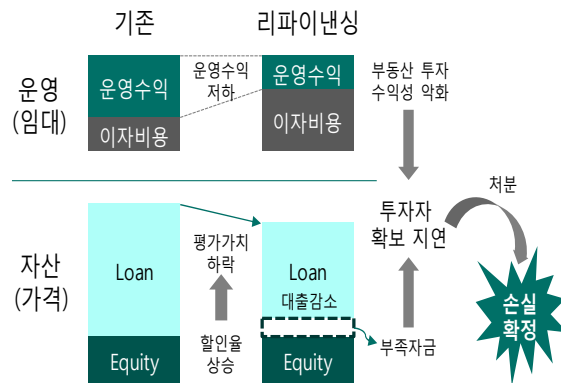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중 금리 상승은 운영 부문과 자산 부문의 두가지 측면에서 상업용 부동산(CRE; Commercial Real Estate)에 악영향이 우려
- 우선, 금리 상승은 이자비용 상승으로 투자자의 세전 순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매력을 낮추는 악영향이 발생
- 자산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할인율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 감소로 인한 부족자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금리 상승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LTV를 낮출 경우 필요한 부족자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투자 매력이 저하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족자금 확충은 지연이 되기 쉬우며 투자자 등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처분할 경우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

### ■ 미국 기준금리 및 국채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 금리 상승이 상업용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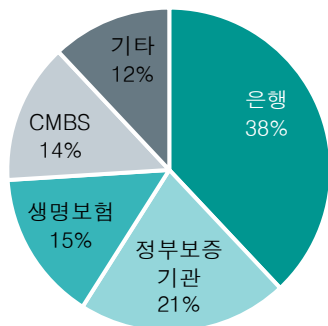
■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중소형 은행의 부실로 비화될 가능성도 대두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2022년 말 현재 5.6조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40% 정도를 은행이 취급하며 나머지는 정부투자기관, CMBS 등이 취급
- 은행이 취급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67.3%를 지방 중소형 은행이 취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중 지방 은행의 비중은 27% 수준
  - 지방 은행이 보유한 대출 자산 중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비중은 약 43%
- 특히, 지방 중소형 은행은 팬데믹시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최고조이던 2021년, 2022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해 가격 하락위험에 더 크게 노출
  - CRE 신규대출 중 지방은행 비중 : 20%('21년), 27%('22년), 17%('15~'19년 평균)

■ 활황기에 급증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 도래로 은행 부실 우려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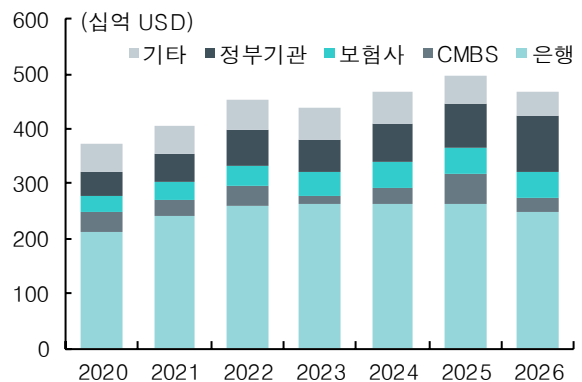
- 올해부터 2026년까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도래 금액은 1.9조달러 수준이며 이 중 은행이 취급한 금액은 약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통상 3년, 5년 거치식 대출을 선호하는 상업용 부동산 구조를 감안하면 2021년, 2022년 취급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는 지속적으로 점증할 것으로 예상
  -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이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기간 동안 이자만 부담하는 거치식을 선호
- 대출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하락했다 고 판단될 경우 은행 또는 Fund 등의 LTV 조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의
  - 예컨대, 미국 CRE에 주로 투자하는 싱가포르 메뉴라이프 REITs는 투자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해 상장 리츠의 레버리지 규제 한도(50%)를 초과함에 따라 일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으며 경영권 처분도 모색하는 중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부채 구성



자료 : MBA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도래



자료 : Trepp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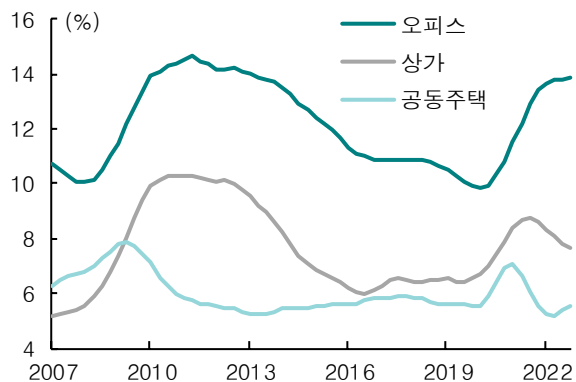
■ 높은 공실로 늘어난 이자비용의 임대료 전가가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익성 악화

- 금리 상승에도 세전 순이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을 통해 이자비용의 임차인 전가가 가능해야 하나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높아 제한적
  - 유형별 공실률('22년 말 기준) : 오피스 13.9%, 상가 8.0%, 공동주택 5.5%
  - 과거 10년 평균 공실률 : 오피스 11.6%, 상가 7.2%, 공동주택 5.7%
- 특히, 미국 오피스 공실률은 대도시 CBD 중심으로 크게 늘었는데 재택근무의 확산 및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등으로 단기 개선도 어려울 전망
  - 주요 도시 공실률 증가('19년 말 대비 '22년 말) : 샌프란시스코 10.3%p, 오스틴 5.1%p, 시애틀 5%p, 덴버 4.9%p
- 상가 공실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

■ 상업용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 등 투자 매력 감소로 추가 Equity 모집에 난항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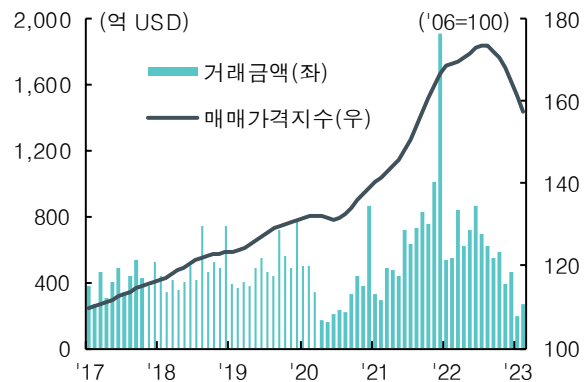
- 금리 상승의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매매가격은 20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가격이 급등한 공동주택의 가격이 급락
  - 유형별 가격변동('22.6월 이후) : 공동주택 -12.6%, 상가 -4.8%, 오피스 -3.7%
- 2023년 1월과 2월의 거래규모는 471억 달러로 1년 전(1,083억 달러) 대비 43.5%에 불과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750억 달러)보다 37.2% 감소
- 시장금리가 급등한데 반해 상업용 부동산의 Caprate 상승폭은 낮아 Caprate Spread는 3%를 밑돌고 있어 투자매력도 저하에 따른 추가 Equity 모집 난항이 우려
  - 미국 CRE 평균 Caprate Spread(국채 투자 대비 초과 수익률)는 '22.9월 2.1%p로 저점에 도달한 후 회복 중이나 여전히 과거 5년 평균(4.5%)보다 낮은 수준

■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자료 : Real Capital Analysis

■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추이




자료 : Real Capital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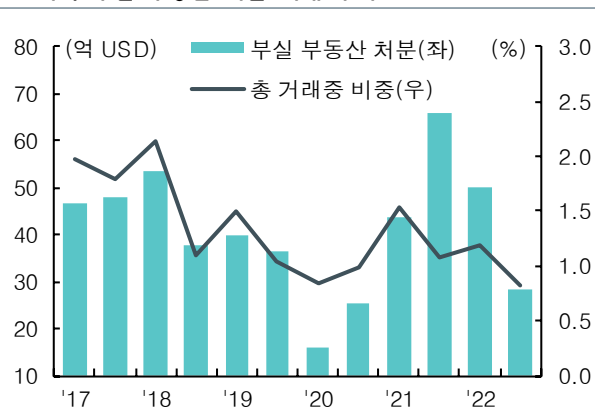
■ 아직까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표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불확실성은 높아

-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나 부실 부동산 처분 거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부실이 표면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
  - '22년 하반기 부실 부동산 처분 규모는 28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이는 '21년 하반기(66억 달러) 및 과거 5년 평균(43억 달러)대비 오히려 낮은 수준
- CMBS 연체율 역시 3%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공실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오피스의 연체율은 최근 비교적 빠르게 상승해 경계감이 확대
  - 오피스 CMBS 연체율 : 1.6%('22.12월) → 1.8%('23.1월) → 2.4%('23.2월)
- SVB 및 CS 등 대형 은행의 부실로 인해 시장 경계심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차환 대출 기준을 높일 경우 리파이낸싱 지연 등으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상존

■ 유명 운용사가 투자한 부동산에서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

- Blackstone, Brookfield 등 글로벌 유명 부동산 전문 Fund 운용사들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부실이 발생하는 등 우려는 확산되는 중
  -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맨하튼, L.A 등 주요 도시의 오피스에서 채무불이행이 집중된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
  - ※ Blackstone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AUM 9,747억 달러)이며 Brookfield는 대체투자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AUM 6,260억 달러)로 모두 부동산에 특화
- 우리나라 펀드 운용사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가 팬데믹 기간을 전후로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국내 펀드 운용사의 글로벌 부동산 펀드 AUM은 '22년말 77조원 규모이며 '19년 대비 약 40%, '17년 대비 약 150% 증가 

■ 미국 부실 부동산 처분 거래 추이



자료 : Real Capital Analytics

■ 주요 상업용 부동산 부실 사례

투자기관	종류	상태	위치	금액
Blackstone	공동주택	특별관리	맨하튼	2.7억불 CMBS
Blackstone	오피스	Default	핀란드	5.3억유로
Brookfield	오피스	Default	L.A	4.7억불
Brookfield	오피스	Default	L.A	3.2억불
Cherit Group	건설 중	Default	맨하튼	4.8억불
Washington Properties	상가	Default	맨하튼	1.8억불 CMBS

자료 : Goldman Sachs

## 디지털지갑, A2A 등 신규 결제 수단의 성장

김 문 태 연구위원

2022년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디지털지갑과 신용카드가 각각 1,2위를 차지하였으며, 디지털지갑 외에도 A2A, BNPL과 같은 대체 결제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향후, 기업의 참여가 활발한 디지털지갑, 수수료 부담이 적은 A2A, 안정적 수요의 BNPL 등의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현금 및 신용카드는 비중이 축소되고, 암호화폐는 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결제 수단 성장에 따른 국내외 지급결제 시장의 구도 변화를 고려한 기회 모색이 필요하다.

### ■ 2022년, 디지털지갑, 신용카드가 결제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A2A, BNPL도 선전<sup>[1]</sup>

- 글로벌 핀테크 기업 FIS에 따르면, 알리페이,페이팔, 애플페이 등 디지털지갑이 2022년 온라인(이커머스)과 오프라인(POS)에서 선도적 결제수단으로 활용됨
  - 2022년 결제 비중(온라인, 오프라인) : 디지털지갑(49%, 32%), 신용카드(20%, 26%)
- 신용카드는 여전히 주요한 결제 수단으로 2022년 엔데믹에 따른 소비 지출 및 해외 여행 회복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각각 전년대비 6%, 12% 성장
- 또한, 온라인에서는 디지털지갑 외에도 A2A(계좌 간 결제, account-to-account), BNPL(Buy Now Pay Later) 등의 대체 결제 수단이 높은 비중을 나타냄
  - 2022년 온라인 결제 비중 온라인 : A2A 9%, BNPL 5%

### ■ 디지털지갑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2A, BNPL 등의 비중 확대 전망


- 디지털지갑은 핀테크, 은행, 빅테크, 디바이스 제조업 등의 공격적인 시장 참여로 2026년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각각 연평균 12%, 15%의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통해 슈퍼 앱 생태계를 구축한 중국이 선도. 미국은 페이팔, 구글페이, 애플페이의 주도 하에 스퀘어, 캐시애플페이 등이 신규 참여
- RTP(실시간 결제, real-time payment) 시스템을 선도하는 A2A는 판매자 결제 수수료 절감 및 즉각적 자금 정산의 강점을 기반으로 P2B 중심으로 성장 예상
- 무이자 신용까지 제공하며 급성장해온 BNPL에게 최근의 고금리는 부정적이지만, 대체 신용의 견조한 수요 및 핀테크 확장을 위한 공급 증가로 비중 확대 예상

[1] "The Global Payment Report 2023", FIS, 2023.3 (한국,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40개국 결제 시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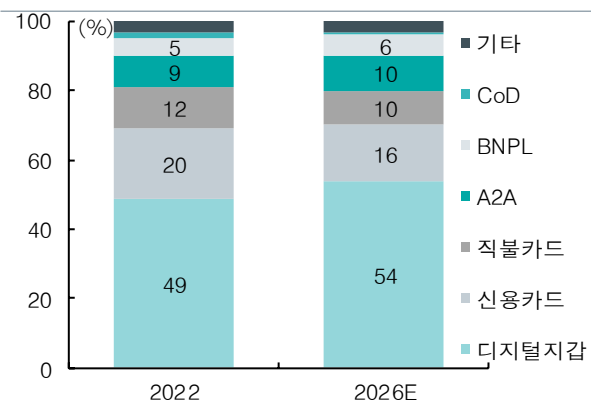
■ 현금 및 신용카드의 비중 축소와 암호화폐의 제한적인 활용이 예상됨

- 디지털 결제 기반의 금융 포용 정책,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판매자의 대안 결제 수용 확대 등으로 인해 현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다만, 일부 오프라인 점포에서의 현금 필요성으로 ‘현금없는 사회’ 실현은 제한적
- 신용카드는 디지털지갑, BNPL, POS 파이낸싱 등 대체 결제 수단과 연동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겠으나, 결제 비중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디지털지갑 사용자의 22%는 신용카드를 디지털지갑에 연동하여 사용 중이며, 이는 은행계좌(34%), 직불카드(2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
  - 신용카드의 결제 비중은 2026년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각각 4%p, 2%p 감소할 전망
- 암호화폐는 가치 변동성, 거래소 파산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이 제한되면서 결제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FIS 설문 : 암호화폐 구매자의 77%가 투자 목적, 결제를 위한 구매는 18%에 불과

■ 신규 결제 수단 성장에 따른 국내외 시장 구도의 변화를 고려한 기회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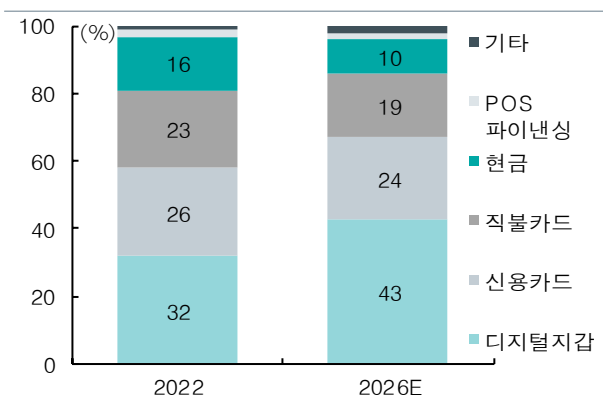
- 빅테크 중심의 디지털지갑, 기존 결제망이 불필요한 A2A, 금융소외계층에 신용을 제공하는 BNPL 등의 성장으로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의 가치사슬 변화가 예상
- 최근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BNPL 등의 대체 결제 수단 도입, 이커머스의 성장과 자택 디지털지갑 확대 등으로 인해 시장 구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국내 금융권에서도 국내외적인 지급결제 시장의 구도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결제 수단의 도입, 글로벌 결제 생태계 참여 확대 등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
  - 카드 및 계좌 보급율, 즉시이체 등의 국내외 차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 

■ 글로벌 온라인 결제 수단별 비중



주 : 이커머스 거래액 기준  
자료 : FIS

■ 글로벌 오프라인 결제 수단별 비중



주 : POS 거래액 기준  
자료 : FIS

## 디지털·AI를 통한 아시아 WM시장 공략

이재완 수석연구원

McKinsey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부유층 및 대중부유층의 소득 증가로 금융자산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해당 고객층의 부상이 은행 및 자산관리 회사의 향후 매출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고객들의 디지털 자문 니즈 또한 증가함에 따라 WM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다.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및 AI에 기반한 고객가치 제안, 디지털 도구 활용, 투자 의사결정 지원, 운영모델 재설계 등을 통해 WM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재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아시아의 부유층 및 대중부유층이 향후 금융회사의 중요 고객군으로 부상

- 아시아 지역 부유층(Affluent)과 대중부유층(Mass Affluent)이 빠르게 성장
  - 아시아 지역 부유층(가계 금융자산 규모 25만~1백만 달러) 및 대중부유층(10만~25만 달러)의 가계 금융자산은 소득 증가로 '21년 2.7조 달러에서 '26년 4.7조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해당 고객층의 소득 성장이 은행 및 자산관리 회사의 향후 매출 성장을 주도
  - 금융회사들은 해당 고객층에게 WM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0억~250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확보할 전망이며, 이는 향후 3년 동안 아시아 지역 수익 성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

### ■ McKinsey는 기술의 발전 및 고객니즈 변화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었다고 분석<sup>1)</sup>


- 아시아 지역 부유층 및 대중부유층의 시장잠재력은 이미 인지되어 왔으나 전통적 고비용 서비스 모델 및 자문료를 꺼려하는 고객 경향으로 시장 확대가 제한
  - WM서비스는 대면을 통한 관계 기반 서비스 모델로 인건비 등 고비용 수반
  - 과거 아시아 지역 부유층은 전문적인 자산관리에 가치를 두지 않고 기본적인 자산군을 선호
- 최근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고객에게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 확대를 제한했던 문제들이 완화되기 시작
- 또한 아시아의 부유층 및 대중부유층의 디지털 채널을 통한 원격 자문 니즈가 증가하고 자문료에 대한 거부감도 완화
  - 아시아 부유층 및 대중부유층의 약 80%가 디지털 채널을 통한 원격 자문을 고려한다고 응답
  - 아시아 선진시장의 해당 고객층 87%, 신흥시장의 64%가 자문료를 낼 의향이 있다고 응답

[1] "Digital and AI-enabled wealth management : The big potential in Asia",McKinsey, 2023.2

■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및 AI에 기반하여 WM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재접근 할 시점

- 현재 서비스가 부족하나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금융서비스 사업에서 보기 드문 기회로 이를 선점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4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
- **(세분화된 고객 가치 제안)** 포트폴리오 크기 및 소득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고객 태도 및 행동적 특성을 통합하여 고객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동질적 소득수준 내에서도 투자 경험, 의사결정 의지, 자문니즈, 위험수용 태도 등에 큰 차이
- **(디지털 도구를 통한 참여)** 개인적인 상호작용과 디지털 상호작용의 균형을 유지하고 디지털 도구를 통해 생산성 및 경험 향상
  - 디지털 셀프 서비스 옵션을 전 고객 여정에 걸쳐 제공, AI기반 분석 콘텐츠 제공
- **(AI기반 의사결정 및 자문)** 조직 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타사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전체 고객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적합한 운영모델 및 인재 확보)** 푸시 기반 판매 방식에서 니즈 기반 자문 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인센티브, 인재확보, 업무 방식을 재설계

■ 국내 금융회사들도 WM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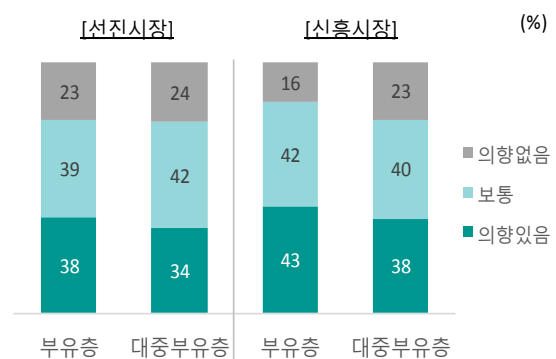
- 국내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기반 WM영역에서 새로운 고객군을 개척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WM모델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정비할 필요
  - 고객 유형을 세분화 하여 고객 자산관리 여정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연계 추진
- 또한 핀테크 기업과의 인수합병이나 제휴를 통해 기술력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금관리, 대체자산 등으로 자산관리 영역 확대를 고려 

■ 아시아 지역의 금융자산 규모

가계 금융자산별 고객 구분	'21년 AUM (십억 \$)	'21~'26 CAGR(%)	'26년까지 AUM 증가분 (십억 \$)
초고액자산가 계층 (>25백만\$)	~2,200	8	~1,050
고액자산가 계층 (1~25백만\$)	~2,900	7	~1,100
부유층 (0.25~1백만\$)	~1,800	11	~1,200
대중부유층 (0.1~0.25백만\$)	~950	13	~800

자료 : Mckinsey

■ 아시아 지역 내 가계 금융자산별 디지털자문 니즈



주1 : Mckinsey 서베이 결과 (n=20,297)

주2 : 선진시장(홍콩, 일본, 싱가포르, 한국, 태국), 신흥시장(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자료 : Mckinsey

## 금리: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윤 석 진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여전히 견조한 미국의 고용시장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반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내금리는 총재의 매파적 금통위 발언과 대내외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등에 따라 상승했다. 4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만장일치 동결과 성장률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담회에서의 총재 발언이 매파적으로 평가되었다. 5월 FOMC를 앞두고 25bp 인상 가능성이 유력해진 가운데,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경계감과 국내의 비우호적 수급여건 등이 금리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글로벌 금리는 여전히 견조한 미국 고용시장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반등 영향으로 상승

- 美 고용보고서 내 비농업 고용자수 증가폭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업률은 재차 하락함에 따라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
  - 美 비농업 고용자수 증감 : 2월 32.6만 명 → 3월 23.6만 명 (예상 23만 명)
  - 美 실업률 : 1월 3.4% → 2월 3.6% → 3월 3.5% (예상 3.6%)
- 한편, 미국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시간대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크게 반등하며 물가 경계감 재부각
  - 美 CPI/PPI (% , YoY) : 1월 6.4/5.7 → 2월 6.0/4.9 → 3월 5.0/2.7 (예상 5.1/3.0)
  - 美 미시간대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 , YoY) : 3월 3.6 → 4월 4.6 (예상 3.7)
- 이와 더불어 영국·유로존의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4월 美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예상치 상회,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글로벌 금리는 상승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4.6일 3.83/3.31 → 14일 4.11/3.52 → 20일 4.14/3.54

### ■ 국내금리는 총재의 매파적 금통위 발언 및 대내외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상승


- 4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담회 발언이 매파적으로 평가되며 시장금리 상방압력으로 작용
  - 한은 총재, “하반기 물가 불확실성 높으며, 현 시점 기준금리 인하 논의 시기상조” 등
- 또한, 중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국내 경기 우려도 다소 완화
  - 중국 실질 GDP 성장률 (YoY) : 22년 4/4분기 2.9% → 23년 1/4분기 4.5% (예상 4.0%)
- 국내금리는 매파적 금통위와 대내외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등에 의해 상승
  - 국고 3/10년 금리(%) : 4.7일 3.24/3.29 → 14일 3.22/3.29 → 21일 오전 3.30/3.37



■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총재 발언을 통해 매파적 스탠스 강조

- 4월 금통위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지속 전망과 SVB發 대외 금융 리스크 부각에 따른 정책여건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준금리 동결(3.5%, 만장일치)
- 통방문에서는 IT 경기 부진으로 국내 수출의 큰 폭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금년 성장률이 2월 전망치(1.6%)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딘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는 강화
- 한은 총재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위험·국내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하반기 물가 경로가 불분명하며, 최근 시장에 반영된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금통위원 대부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
- 근원물가 상승압력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한은은 하반기 국내 성장률의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어 경기 요인에 의해서도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은 높지 않을 전망

■ 5월 FOMC에 대한 경계감과 국내 채권시장 수급 우려 등이 금리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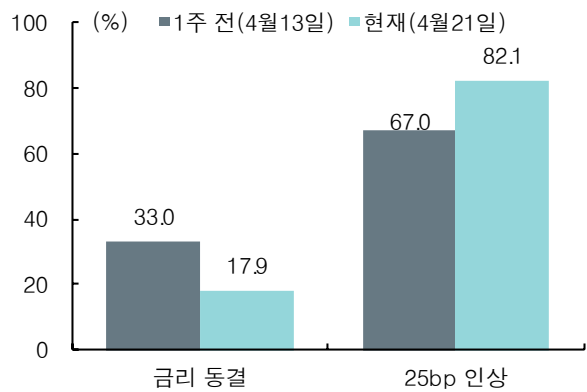
- FOMC를 앞두고 5월 동결·연내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며 25bp 인상 전망 유력화
  - CME Fedwatch(4.21일) : 5월 동결 전망 17.9% / 25bp 인상 전망 82.1%로 반영
- 여전히 잔존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9월 인하 전망 41.4%) 등을 감안 시 5월 FOMC에서 연내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발언이 등장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 국내에서는 내외금리차 추가 확대(연준 25bp 인상 시 175bp 역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으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추경 및 국고채 발행량 확대 가능성, 은행채·한전채의 발행 부담 등에 따른 비우호적 수급여건 또한 금리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소지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25%~3.50%, 3.30%~3.55% 범위로 전망 

■ 미국 미시간대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 Bloomberg

■ 5월 FOMC 결과에 대한 시장 예상(Fedwatch)



자료 : CME Fedwatch

## 외환: 긴축 경계감 재부각에 유의

오 현 희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한은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왑 거래 합의 등 당국의 환율 관리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약세 흐름 속에 무역적자 지속과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 등으로 수급여건이 악화되며 1,300원을 상회하는 흐름을 지속하였다. 미국 CPI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초적인 물가압력 고착화 우려로 주요국의 긴축 경계감이 재부각 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 [원/달러 환율] 당국의 환율 상승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수급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국내 수급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 부각 등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동조되며 1,320원대 상향돌파
  - 무역적자 지속(4.10일까지 34.2억 달러 적자),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은 수급 압박
  - 4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로 한·미간 금리차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불안 요인
- 아울러 예상을 상회한 英 물가(10.1%)와 美 실물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로 원/달러 상승압력이 높아지며 1,330원 돌파(연고점 경신 4.20일)
- 다만, 한은과 국민연금간 \$350억 규모의 외환스왑 거래 합의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 美 물가 둔화에 따른 긴축 우려 약화 등은 원/달러 상승 억제 요인

### ■ [국제 환율] 美 물가지표 둔화 속 실물지표는 호조를 보이며 달러화 상하방 요인 혼재

- 달러화는 美 CPI와 PPI가 잇따라 예상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ECB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유로화 강세 등으로 약세
  - 다만, 4월 美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속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상승 전환, 주택시장 심리지수 4개월 연속 상승 등 실물지표 호조는 달러화 상승요인
- 엔화는 가즈오 신임 BOJ 총재의 경기부양책 유지 발언에 따른 정책 전환 기대 축소 속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으로 금리차가 확대되며 약세
- 위안화는 中 1분기 GDP성장률(4.5%)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일시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지정학적 갈등 및 중국 경기 추가 모멘텀 부재로 박스권에서 횡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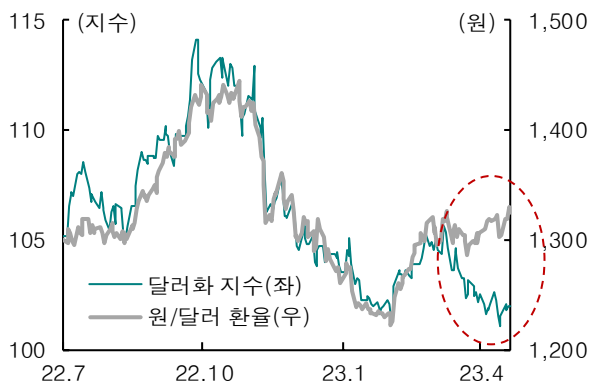
■ 美 CPI 및 PPI 둔화에도 기초적 물가압력 고착화 우려로 긴축 기조 지속 가능성 확대

- 미국 물가지표 둔화 발표로 긴축 마무리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달러화는 약세
  - 3월 미국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5.0%에 그쳐 2021년 5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생산자물가(PPI)도 2.7% 상승하여 2월(4.9%)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
- 다만, 경직적인 서비스물가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급등하며 인플레 고착화 우려 부각
  - 타이트한 고용 여건 속 서비스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3월 근원 CPI는 전월보다 높은 5.6% 기록(서비스물가의 CPI 기여도: 22.6월 3.2%p→ 23.3월 4.2%p)
  - 향후 1년간 소비자 예상 물가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4.6%로 급등(전월 3.6%)
- 또한,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이 에너지 부분에 상당부분 기인함을 감안할 때 산유국 추가 감산 등으로 유가 불안이 나타날 경우 물가 불안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
  - 3월 에너지물가는 전년동월대비 6.4% 하락,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0.5%p

■ 물가에 대한 우려로 긴축 경계감이 고조될 때마다 환율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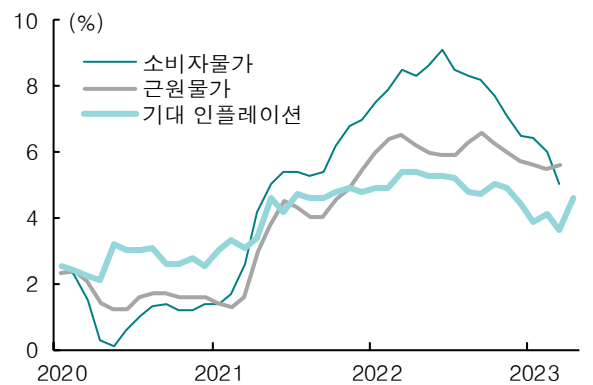
- 은행궤 국제 금융 불안은 완화되었으나,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긴축 경계감이 재부각 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흐름이 지속될 가능성
  - 최근 연준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은 아직 높고 고용여건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시장 예상보다 오랜 기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
  - 아울러 유로존과 영국의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
- 다만, 대내적으로는 당국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美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와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긴축 중단 가능성 등이 상단을 제한할 전망
  -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 1,280~1,340원에서 등락하며 불안정한 흐름 지속할 전망

■ 달러화 지수와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미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 부동산: 가격 하락폭 축소되나 부담요인 지속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규제 완화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일부 개선되고 가격 급락과 대출금리 인하로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 하락폭은 축소되었다. 미분양 재고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나 분양물량 감소로 인한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시장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 미매각, 잔금대출 미확보 등으로 주택 입주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매매시장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선호도 높은 유형과 지역 중심으로 급매 거래되며 하락세 완화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했으나 규제 완화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일부 개선되고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하락폭은 축소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1.49('23.1월) → -1.15(2월) → -0.78(3월)
- 가격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전국 매매가격 하락세 완화
  - 유형별 상승률(% , MoM, 2월/3월) : 아파트 -1.62/-1.09, 연립 -0.42/-0.33, 단독 -0.10/-0.07
- 입주물량 증가, 매물 적체 영향으로 전세가격도 하락세 유지 중이나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부담이 줄며 임차인 선호지역 중심으로 하락세 완화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2.29('23.1월) → -1.80(2월) → -1.13(3월)


### ■ 미분양 재고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나 분양물량감소에 따른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음

- 가격 하락세 완화와 함께 미분양 재고 증가세도 둔화되자('23.1월 대비 2월 79호 증가) 주택시장 회복 신호로 보는 시각이 대두
  - 미분양 재고(호) : 58,027('22.11월) → 68,148(12월) → 75,359('23.1월) → 75,438(2월)
- 그러나 미분양 증가세 둔화는 미분양 우려로 인해 분양물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시장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시기상조
  - 분양(예정)물량(호) : 39,761('22.11월) → 42,046(12월) → 11,003('23.1월) → 8,839(2월)
- 또한 미분양의 83.4%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은 경기 침체로 미분양 소진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매매시장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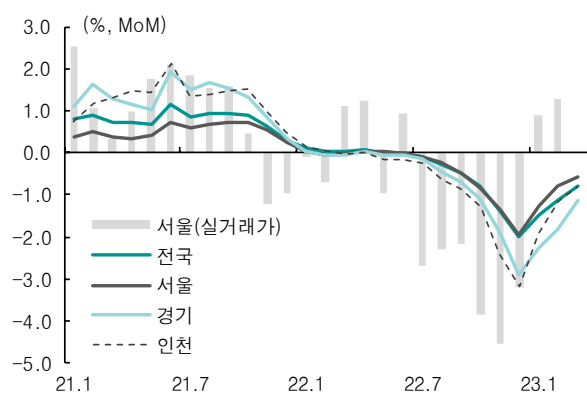
■ 거래 침체, 세입자 확보 난관으로 지방 주택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어 가격 회복에 부담

- 주택 입주율은 기존 주택 매매각, 잔금대출 및 세입자 미확보 등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낮은 수준을 기록
  - 주택 입주율(%), 수도권/지방) : 82.4/70.6(22.9월) → 77.8/70.4(12월) → 73.6/62.7(23.3월)
  - 3월 지방 주택 입주율은 2월 수치(60.4) 대비 소폭 회복하였으나 60% 초반에 불과
- 주택 입주율이 하락함에 따라 임대차 대기 물량이 증가하는 한편, 소유자의 매도 전환 시에는 매매 매물도 증가해 각각 전세·매매가격 하락세에 영향
- 규제지역 해제, 전매 제한기간 축소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매입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적체된 매물을 해소하려면 장기간 소요 예상

■ 한편, 전세사기 등 보증금 리스크는 월세화 가속과 관련 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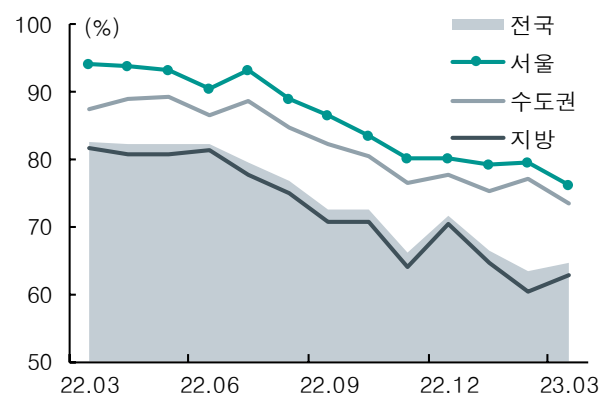
-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임대시장 내 전세 보증금 리스크가 증대
  -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유예,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낙찰받은 경우 저리대출 지원 등을 검토
- 전세보증금 리스크는 전세 대신 월세로 계약하는 월세화를 가속시켜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전세 중심 → 월세 중심)를 확대시킬 가능성
- 이에 대응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제도 재정비, 전세보증보험 등 관련 제도 확대로 임차인 주거 안정 및 임대시장 내 금융 피해 축소 노력이 지속될 전망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주택 입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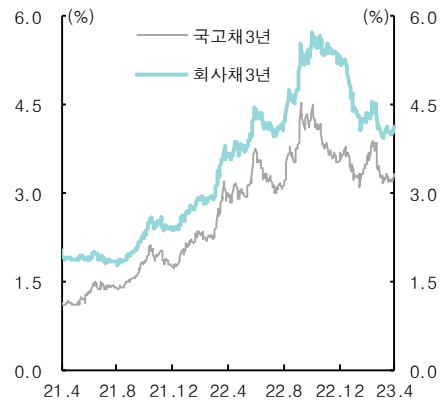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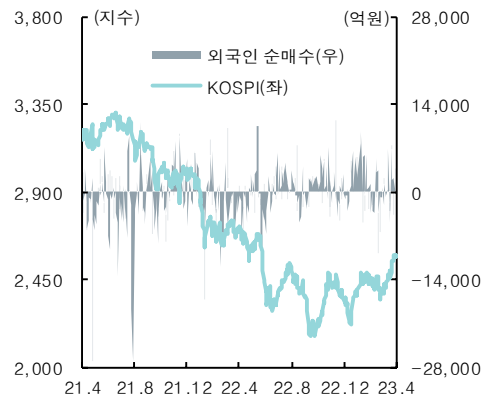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3월말	3.57	3.59	3.54	4.07	3.27	3.27
4월 14일	3.49	3.43	3.46	4.02	3.22	3.20
4월 17일	3.48	3.43	3.48	4.09	3.29	3.28
4월 18일	3.47	3.44	3.48	4.10	3.29	3.29
4월 19일	3.43	3.45	3.49	4.15	3.34	3.33
4월 20일	3.49	3.47	3.49	4.15	3.33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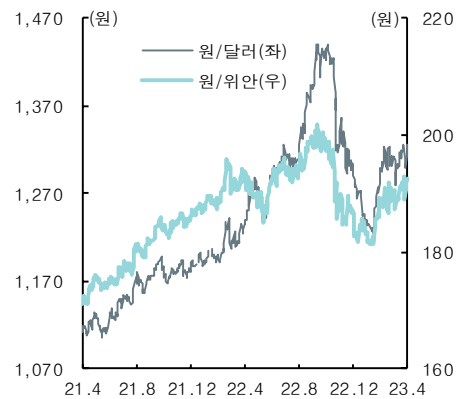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3월말	2,476.9	129,034	723	6,877
4월 14일	2,571.5	130,882	892	1,871
4월 17일	2,575.9	127,937	776	-168
4월 18일	2,571.1	141,064	897	3,888
4월 19일	2,575.1	127,509	957	-69
4월 20일	2,563.1	124,155	951	1,542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3월말	1,301.9	980.6	189.5	1,411.4
4월 14일	1,298.9	970.8	189.0	1,427.6
4월 17일	1,311.1	974.6	190.6	1,432.6
4월 18일	1,318.6	983.1	191.8	1,446.8
4월 19일	1,325.7	983.9	192.5	1,452.2
4월 20일	1,322.8	985.2	192.4	1,4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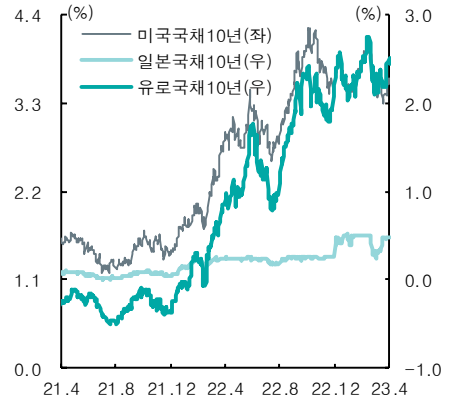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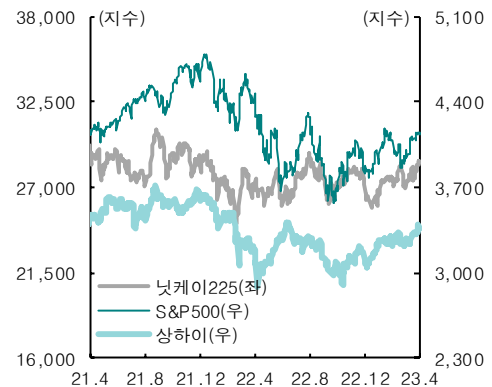
###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77	4.43	3.87	0.42	2.57
3월말	4.83	5.19	4.03	3.47	0.35	2.29
4월 14일	4.83	5.26	4.10	3.51	0.48	2.44
4월 17일	4.83	5.27	4.19	3.60	0.49	2.47
4월 18일	4.83	5.25	4.20	3.58	0.48	2.48
4월 19일	4.83	5.26	4.24	3.59	0.48	2.52
4월 20일	4.83	5.27	4.14	3.53	0.47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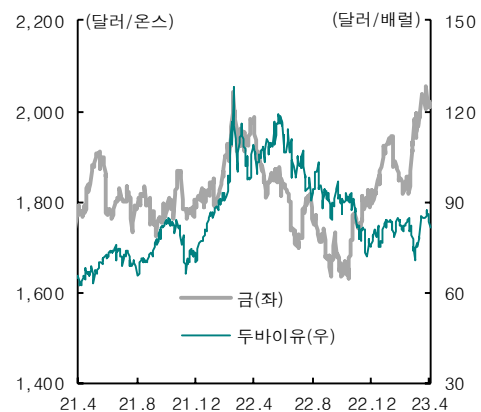
###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3월말	4,109.3	28,041.5	3,272.9	4,315.1
4월 14일	4,137.6	28,493.5	3,338.2	4,390.8
4월 17일	4,151.3	28,514.8	3,385.6	4,367.6
4월 18일	4,154.9	28,658.8	3,393.3	4,394.0
4월 19일	4,154.5	28,606.8	3,370.1	4,393.6
4월 20일	4,129.8	28,657.6	3,367.0	4,384.9



###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3월말	132.76	1.084	84.1	2,000.4
4월 14일	133.79	1.099	86.1	2,015.8
4월 17일	134.45	1.093	85.9	2,007.0
4월 18일	134.09	1.097	84.7	2,019.7
4월 19일	134.70	1.095	83.6	2,007.3
4월 20일	134.23	1.097	81.7	2,019.1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9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4월 21일 인쇄

2023년 4월 24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http://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9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